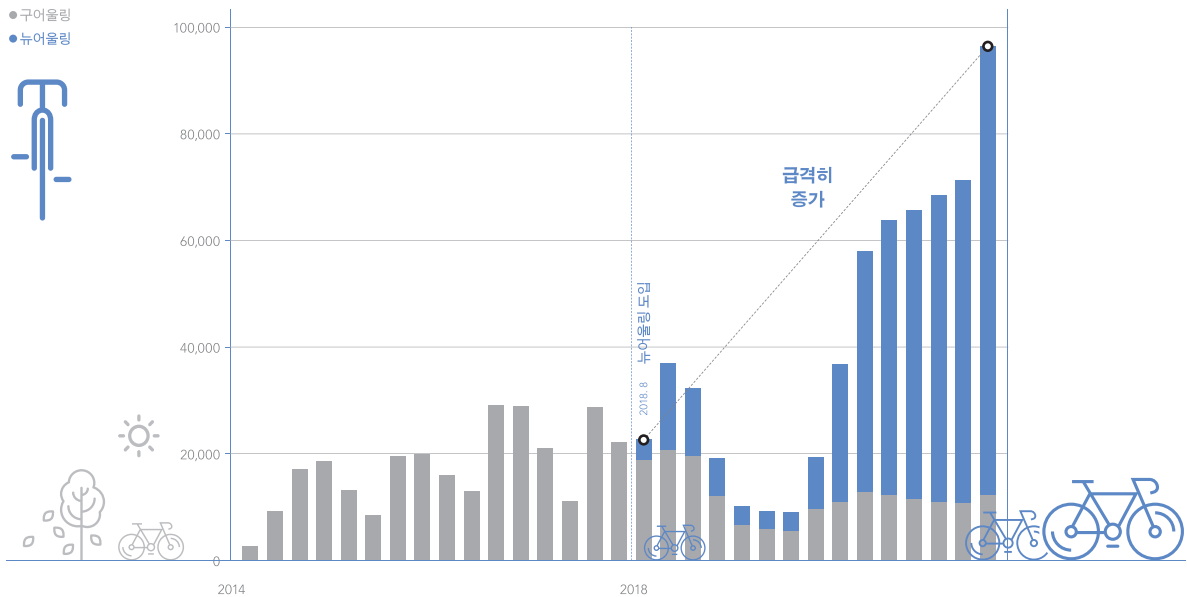


세종시민들은 공유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최근 국내외 많은 도시가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종시도 2014년 10월부터 '어울링'이라는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여 과정 등이 개선된 '뉴 어울링' 1,362대와 '구 어울링' 735대 등 모두 2,097대의 어울링 자전거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4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5년간 약 130만 건의 대여 반납 이력 데이터를 분석해 세종시민들이 어울링을 언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Q 월별 어울링 대여 건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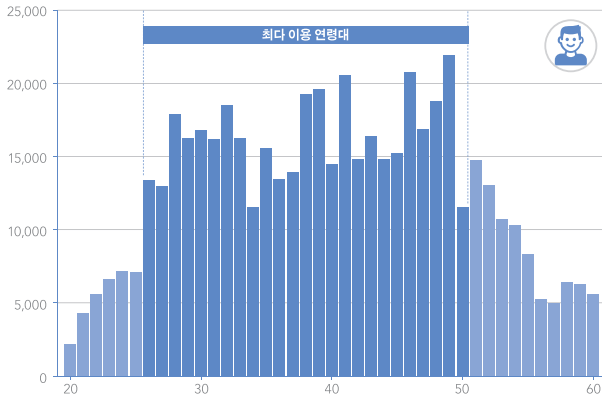


A 공유자전거 대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뉴 어울링' 도입 이후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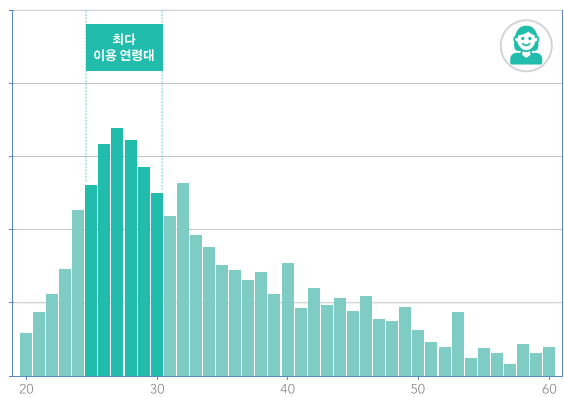
2014년 10월 6일 첫 대여를 시작으로 5년간 꾸준히 대여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한 달의 대여 건수가 9만 6,167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뉴 어울링' 도입 이후 이용량이 크게 늘었는데, 뉴 어울링은 대여와 반납이 가능한 거치대 수가 훨씬 더 많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5~6월, 9~10월에 이용량이 많았으나 뉴 어울링 도입 후인 2019년에는 여름에도 이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급격히 증가하였다. 월별 총 이용량 증가에 뉴 어울링의 도입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Q 어떤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할까?

남성 연령별 대여 횟수 분포 (2014.10-2019.10)



여성 연령별 대여 횟수 분포 (2014.10-20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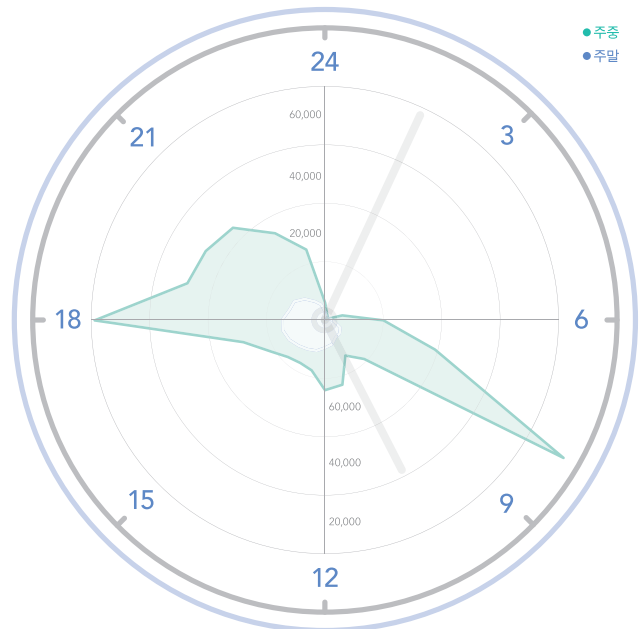
A 25세에서 35세가 많이 이용하며, 성별에 따라 연령별 이용량에 차이가 있음

25세부터 50세까지의 이용이 고르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25~35세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의 경우 25세부터 50세까지 이용량이 고른 편인 데 비해 여성은 25~30세가 뚜렷이 최대 이용구간으로 나타나는데 25세에서 연령이 적어질수록, 30세에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이용량은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미성년자의 이용은 많지 않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25세를 분기점으로 이용량의 급격한 차이를 보인다. 어울링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인 세종시 정부청사 부근에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이용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Q 언제,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많이 이용할까?

A 주말보다 주중에, 주말 오후 5시대와 주중 출퇴근 시간의 이용량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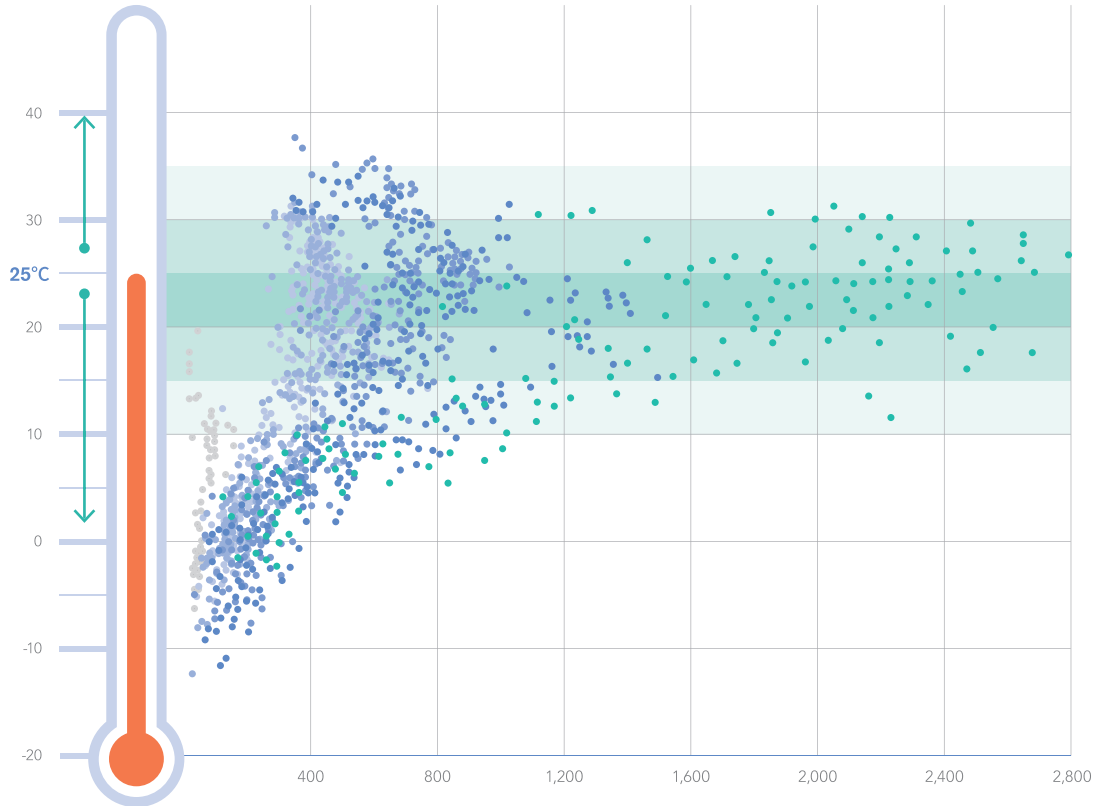
먼저 주말보다 주중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패턴과 주중의 이용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주말의 경우에는 오후 5시를 정점으로 하여 전후로 이용량이 낮아졌으며 남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주중에는 남녀 모두 오전 8시대와 오후 6시대 이용이 많은데, 이는 출퇴근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Q 일평균기온이 하루 대여 횟수에 영향을 미칠까?

2014.10. ~ 2019.10., 일강수량 1mm 이하, 연도별로 분리



A 일평균기온 20~25°C를 정점으로 대여량이 줄어듦

분석 결과 일평균기온과 대여량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일평균기온 20~25°C를 정점으로 기온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대여량이 주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자전거가 승용차와 달리 온열환경 조절을 할 수 없어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